

Bubble Film Putiputi

완충포장용 버블필름 ‘푸티푸티’

杉山 彩香 / 가와카미산업(주) 상무 겸 푸티푸티문화연구소 소장

I. 서론

일본의 가와카미산업은 에어시트 ‘푸티푸티®’와 가벼운 보드 ‘프라펠®’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푸티푸티’는 소중한 것을 충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지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1번썸은 손가락으로 ‘푸티푸티’를 눌러본 적이 있을 정도로 친숙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II. 푸티푸티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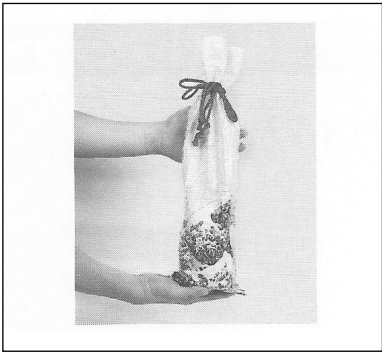
동사에서는 2001년부터 ‘푸티푸티문화연구소’를 발족하고, ‘푸티푸티’에서 탄생된 문화적 사상을 수집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푸티푸티는 곤포용도 외에 광고에 사용되거나(톡톡 터지는 상품의 이미지 재료로써 TV게임의 모 캐릭터 토벌(‘푸티푸티’를 터트린다) 광고 등), 의상 소재로써 사용되거나 생각할 수 없던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2006년에는 그 내용을 정리한 ‘푸티푸티 오피셜 북’을 출간했고, 2007년에는 일본의 대표적 완구기업 ‘반다이’와 공동으로 언제 어디서라도 푸티푸티할 수 있는 키 체인 ‘∞(무한) 푸티푸티®’를 발매하고 누계 매상수 350만 개 이상을 기록하며 대히트했다.

III. ‘풍속화 푸티푸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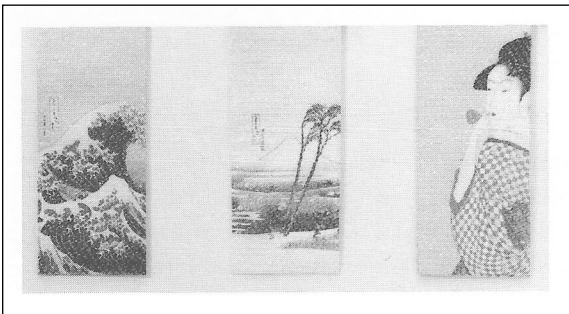
다음에 에도시대의 풍류를 즐기면서 깨지기 쉬운 물건을 확실히 지키는 선물 포장을 소개한다. 상품명은 ‘풍속화(浮世繪) 푸티푸티’이다. 파우치 형태로 만든 푸티푸티에 다양한 풍속화를 인쇄한 제품이다.

[사진 1] 후가쿠 36경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작가 가츠시카 호쿠사이가



이 상품은 '현대'를 테마로 열린 아트와 디자인의 컴피디션 '도쿄 미드타운 어워드(Tokyo Midtown Award)'의 디자인대회에서 1,316개 응모작 중 준 그랑프리를 수상했다(2015년도). 그 후 상품화해 공익재단법인 일본디자인진흥회 주최로 디자인에 의해 우리 삶과 사회를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한 제품에 수여하는 '굿디자인상(2018년도)'을 수상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디자인은 디자인유닛 'coneru'가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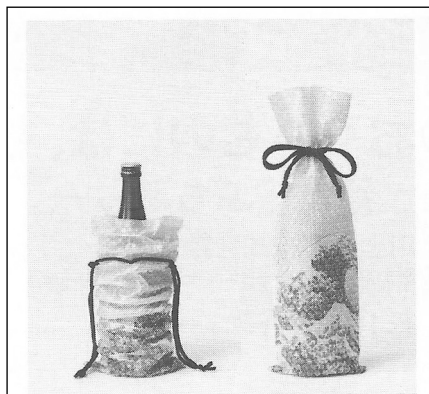
[사진 2] (왼쪽부터), 후가쿠 36경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작가 가츠시카 호쿠사이가, 부녀인상 심품 '비드로를 부는 여인' 작가기타가와 우타마로, 후가쿠 36경 '순슈 에지리' 작가 가츠시카 호쿠사이가



IV. 아이디어가 탄생한 경위

현대에는 온라인쇼핑이 일반화돼 골판지에 넣은 상태로 물품을 수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선물을 싸는 종이나 포장용 끈 등을 많이 사용하며 '선물'에 대한 높은 미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예전부터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물'에

[사진 3] 사용 예
후가쿠 36경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작가 가츠시카 호쿠사이가



대한 미의식을 현대로 가져와 '선물'을 개봉한 순간의 놀람과 감동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연구를 하던 가운데 골판지상자에 선물을 곤포할 때에 사용되던 에어시트 '푸티푸티'의 존재에 주목했다.

일본의 완충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에도시대에 해외로 도자기 등을 수출할 때에 손상된 풍속화를 완충재로 사용한 이력이 있다. 도자기와 함께 도착한 풍속화에서 양인들은 매우 놀랐다. 그 놀람이 고희, 모네를 비롯한 인상파 화가에게 전달되었고, 재

[사진 4] 사용 예
후가쿠 36경 '순슈 에지리', 작가 가츠시카 호쿠사이가



[사진 5] 사용 예
부녀인상십품 '비드로를 부는 여인', 작가 기타가와 우타마로



패니즘으로 발전했다. 이 이야기로부터 현대의 완충재인 '푸티푸티'에 풍속화를 더해 놀람과 감동을 함께 주는 '풍속화 푸티푸티'가 탄생했다. 캐치 카피 '선물에는 이야기가 있다'가 제품에 그대로 담겨있다.

V. 풍속화 작품과 사이즈 전개

풍속화 작품은 가츠시카 호쿠사이가의 후가쿠 36경 중에서도 인기가 높은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기타가와 우타마로의 유명한 미인도 '비드로를 부는 여인', 해외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가츠시카 호쿠사이가의 '순슈 에지리'의 3종을 적용했다.

파우치 사이즈는 1병용과 4병용의 2가지 종류를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술의 포장을 중심으로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

VI. 앞으로의 계획

JNTO(일본정부관광국) 2018년 9월 19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의 방일 외국인관광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

한 257만 8,000명으로, 2017년 8월의 247만 7,000명을 10만명 이상 상회하며 8월 방문객 수로는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8월까지 누계는 2,130만 9,000명으로, 가장 빠른 페이스로 2,000만 명을 넘겼다. 시장별로는 이탈리아, 스페인이 과거 최고를 기록했으며, 그밖에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16개 국가가 8월 방문객 수로써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동사는 방일 외국인관광객 수의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풍속화는 방일 외국인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장르이고, 일본의 포장 문화에 관해서도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풍속화 푸티푸티' 자체의 랩핑 재료로서의 개인 소비, 그리고 인바운드상품 및 수출상품의 곤포장재로서의 소비 등 양 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해나갈 계획이다. 